

약국당 배정 물량·판매시간 미리 고지해야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휴일지킴이 약국도 문 안 열어
입고량·시간도 모른 약사들
"배정 갯수 알면 시민 헛수고 줄어"

지난 7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은 공적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 100명이 몰리며 북적였다. 시민들은 두툼한 패딩재킷으로 무장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에는 중형 KF94급 마스크 50장, 소형 100장이 들어왔다. 하지만 소형 마스크는 5개 단위 포장 제품이 입고되면서 분배 과정에서 오염 우려로 판매가 취소됐다. 결국 판매가 가능한 마스크는 50장 뿐이었다. 마트는 선착순 50명에게만 번호표를 지급하고, 다섯 시간 뒤인 오후 2시에 판매

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줄을 선 시민들은 아무도 되돌아가지 않았다. 9시 30분, 번호표 지급이 시작됐지만 3분도 되지 않아 번호표 50개가 동이 났다. 번호표가 끊기자 한 시민은 "아니 여기서 끊겨 버리면 우린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으로 제한하기로 한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둔 주말, 광주지역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에는 부족한 정보 탓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당장 마스크 입고 시간을 몰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쌍충동 운전역 인근 약국 앞에서 만난 김모(72)씨는 "동네 약국 서너 곳을 돌아다녔지만 마스크는 구경도 못했다. 속이 터져 죽겠다"며 "내가 운이 나쁜 건지 내가 찾았을 때 없다가 나중에 가보니 다 팔렸더라"라며 인

상을 찌푸렸다. 매일 다르게 공급되는 수량도 문제다.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번호표를 나눠 주기도 곤혹스럽다는 게 약국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0장의 번호표를 배부했다가 150장의 마스크만 공급될 경우 자칫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약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약국 650곳 중 주말인 지난 7일에는 600곳, 8일에는 240곳만 문을 열었다. 이들 약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50장, 200장, 150장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동구 지원동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마스크 배달 시간, 수량은 우리(약사)도 모른다"며 "보통 오전 중에 이뤄지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운이 좋은 손님만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약사는 "미리 배정되는 수량을 알면 약국별로 오전 중에 번호표를 지급해 소비자의 헛고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약사회가 '휴일지킴이약국'을 고지하고 있는 것 외에 광주시나 5개 구가 마스크를 공급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8일 오전에는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까지 '막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분통을 샀다. 광주약사회 관계자는 "물량이 때면 다른 이유는 모르겠으나 9일부터는 250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지역에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 3곳이 차로 배달을 하다 보니 약국별로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 시간도 오전에 집중되면서 직장인들은 전혀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러 나갈 수도 없어, 오전 중에 들어오는 마스크를 구매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종합버스터미널 내 약국 앞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광주 초·중·고등생 긴급돌봄 신청 1.3%·전남 4.3% 불과

유치원도 20% 안팎에 그쳐
돌봄 혼란...현실적 대안 시급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가 개학을 연기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진행된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 결과, 특수학교를 포함해 광주에서는 125개 학교에 1081명이 신청했다. 참여학교수는 전체 8만 6348명의 1.3%에 불과했다. 전남은 327개교에 4019명으로 전체 학교의 76.2%가 참여한 반면 학생 참여 비율

은 4.3%에 그쳤다. 9만 2472명 중 극소수만 참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가정돌봄 등을 택했다. 유치원은 초·중·고에 비해 신청자수가 많았지만 이 역시 광주·전남 모두 전체 유치원생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또 신청자 대부분이 저학년이고 초등 4학년 이상 고학년은 10%에 미치지 못해 긴급돌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자칫 초등 고학년과 장애인 학생들이 보육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포항 지역 긴급돌봄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 판정으로 집단감염이 현실화됐고, 교육 당국의 휴원 권고에도 유치원과 학원의 참

여가 적은 상황에서 돌봄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의 경우 학교와 학원은 물론 복지관과 재활센터, 체육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은종일 집에 있거나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긴급돌봄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고충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는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 돌봄 휴가와 재택근무를 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YMCA, 12개 입점 점포 임대료 2개월간 15% 인하

광주YMCA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에 적극 동참하고자 광주YMCA 건물 내 입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YMCA는 입점 점포 12곳의 임대료를 2개월(3-4월) 동안 15% 인하한다. 또 광주YMCA는 대구지역 경증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기로 한 광주시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오는 9일 손소독제 1004개를 대구YMCA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YMCA는 지난 2월 3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이YMCA에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 해질 18:02
달뜨기 18:35 | 달집 06:42

우산 챙기세요
저기압 영향으로 비 오는 곳 있겠다.

구분	지역	날씨	기온
서울	서울	흐림	10~15
대전	대전	흐림	10~15
부산	부산	흐림	10~15
광주	광주	흐림	10~15
제주	제주	흐림	10~15

◇ 바다 날씨

구분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동~남동	0.5	북서~북	0.5~1.5
	면바다(북)	동~남동	0.5~1.5	북서~북	1.0~3.0
	면바다(남)	동~남동	0.5~1.5	북서~북	2.0~3.0
남해서부	안바다	동~남동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대)	동~남동	1.5~2.5	북서~북	1.5~2.5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구분	지수	상태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좋음	좋음

◇ 물때

구분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목포	간조	07:04	19:38	01:34	14:17
	만조	02:40	15:11	09:10	21:23

◇ 주간 날씨

구분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
기온	7/9	3/11	1/16	4/11	-1/10	1/12	2/14

내일 낮까지 10mm 내외의 봄비...기온은 포근

9일 광주·전남에 10mm 내외의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비는 9일 오후 남서해안에서 시작, 밤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돼 10일 낮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9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10mm, 남해안 지역은 10~40mm 수준의 다소 많

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평년(영하 1~영상 3도)보다 높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 분포로 평년보다 2~4도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광주·전남은 따뜻한 동풍과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13도 이상 올라 포근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신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3개월치 감면

학생들엔 3주치 기숙사비 환불

동신대학교가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시름하고 있는 대학 건물 임대 상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재학생들에게는 3주 가량의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동신대는 대학 소유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18개 업체에게 3개월치 임대

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납입된 임대료는 전액 돌려줄 방침이다. 또한 개강과 기숙사 입소를 늦추면서 발생한 기숙사비 차액도 재학생들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동신대는 지난 2일 예정됐던 개강을 2주 연기했고, 개강 후 2주 동안은 온라인 등 재택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기숙사 입소가 4주 미뤄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갈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